



## 한성학원법인 정태원 감사, 임시총장으로 선임돼

지난 10월 23일 2차 임시이사회에서 감사 임시총장의 사표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리됐다. 이어 10월 24일 이사회는 한성학원법인 정태원 감사(법무법인 (유)에이스 변호사)를 임시총장으로 선임했다. 정태원 임시총장은 지난 3일 진행된 학생대표와의 면담에서 "대학 구성원들과 함께 우리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컨설팅 대비에 힘쓸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이사회는 총장 선출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장선출 방식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태원 총장은 내년 1월까지 총장을 맡을 예정이며, 2월에 신임 총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일 최치현 총대위원장, 임병국 졸준위원장, 박채승 공대회장은 정태원 임시총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

서는 정태원 감사가 임시총장으로 선임된 배경 설명과 학교의 전반적인 상황, 발전가능성, 교육부 컨설팅 평가 대비 등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치현 총대위원장은 "컨설팅 준비 과정과 이행 과정에 대해서 학생들도 알 수 있도록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 자료공개가 어렵다면 학교 상황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가 어려운 상황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더 이상 납득할 수 없는 방식의 희생강요와 그에 따른 피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한지선 기자 mongrock@hansung.ac.kr

### 지면안내

**보도**  
제31대 총학생회 '너목들' 선본 단독 출마

02



### 사회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45주기, 지금 우리나라 청년노동환경은?

03



## 다가온 총선거, 세 단위 후보자만 등록 마쳐

지난달 29일 2015년 11월에 치러질 총선거 등록이 공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11일간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학생복지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 인문대 학생회, 사회과학대 학생회, 예술대 학생회, 공과대 학생회의 후보자 등록을 받았다.

총학생회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선거운동본부, 예술대 학생회 'For You' 선거운동

본부, 공과대 학생회 '강철' 선거운동본부만이 등록을 마쳤다. 총대의원회, 학생복지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 인문대 학생회, 사회과학대 학생회는 출마한 후보가 없다.

이번 총선거의 유세기간은 11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 동안 진행된다. 유세기간 중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창의관 소강당에서 열리는 총선거 정책토론회는 각 후보자들의 공약 설명과 질의응답 등

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투표일은 오는 24일-25일 양일간 창의관, 우진사, 탐구관, 공학관 A동 휴게실 앞, 미래관과 우촌관 사이 잔디밭에서 진행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다. 학생들을 배려해 기존보다 늦은 시각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취재부)

## 11월 17일 교육부 컨설팅단 본교 1차 방문 확정

오는 17일 본교 컨설팅을 위한 교육부 컨설팅단이 1차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본교에 대한 교육부 컨설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본교는 지난 8월 발표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다소 미흡)'을 받으며 '정원 10% 감축'을 권고받았다. 그리고 정부의 신규 재정지원사업 참여와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II유형 신청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교육부

의 컨설팅 과제 이행여부에 따라 2017년에 재정지원 제한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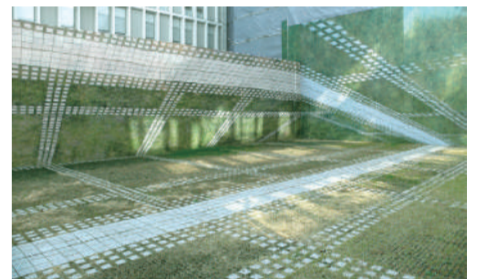
지금까지 대학본부는 컨설팅에 대비해 '컨설팅 준비 TF'를 거쳐 '컨설팅 대응팀'을 구성하여 컨설팅에 대한 준비를 했다. 또한 '컨설팅 이행과제 추진 위원회(가칭)'를 구성할 예정이다. 17일 컨설팅단의 방문 후 결과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지선 기자 mongrock@hansung.ac.kr

### 사람

한성대학교 대학원 현대미술 전공 재학생 홍영민 작가를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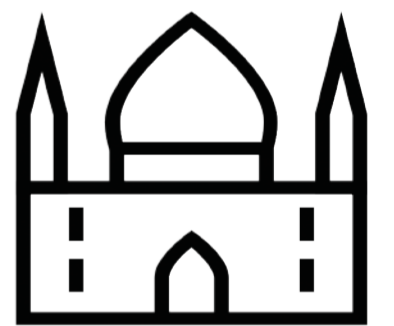
05



### 학술

이자 안 주는 은행, 이슬람 금융

06



### 문화

모든 성소수자들을 위한 특별한 축제, 서울프라이드영화제

07



## 노동조합, 학교에 장학금 500만원 기부해



전국대학노동조합 한성대학교지부(이하 노조)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로 인해 고통을 겪은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학금 500만원을 조성해 본교에 기부했다. 12일 오후 2시 총장실에서 노조 회원들과 정태원 임시총장, 이종훈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기부식을 가졌다. 이후 장학금과 회의를 거쳐 장학금의 형식으로 학생

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장학금 기부에 대해 이종훈 이사장은 "노조가 곳곳이 중심을 지켜줘서 어려운 일이 없다"며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장학금을 마련한 것은 모두가 감사해야 하고 본 받아야 할 일이다"고 노조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민정 기자 kmj@hansung.ac.kr

## 보직교수 교체 이뤄져

지난 11월 2일자로 본교 보직교수의 교체가 이루어졌다. 보직교수 임면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보직명	임면사항	성명	소속	직급	임면일자(임용기간)
교무처장	면	김동환	한국어문학부	교수	2015.11.01
	보	홍정환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2015.11.02 (2015.11.02-2016.01.31)
기획협력처장	면	홍정환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2015.11.01
	보	전주상	행정학과	부교수	2015.11.02 (2015.11.02-2016.01.31)
학생처장	면	김동환	한국어문학부	교수	2015.11.01
	보	지준	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	2015.11.02 (2015.11.02-2016.01.31)
총무처장	면	조지연	인테리어디자인전공	교수	2015.11.01
	보	조지연	인테리어디자인전공	교수	2015.11.02 (2015.11.02-2016.01.31)
입학홍보처장	면	홍정환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2015.11.01
	보	김승현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2015.11.02 (2015.11.02-2016.01.31)

### 동정란

**문귀선(영어영문학부) 교수**  
문 교수는 내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워싱턴DC Marriott Marquis에서 개최되는 미국언어학회(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LSA) 2016 Annual Meeting에서 "Semantic Licensing of Corrective Fragments"라는 주제로 논문발표를 할 예정이다.

**홍승린(무역학과) 교수**  
홍 교수는 국제무역 및 물류분야의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Who's Who in the World® - 33rd Edition)' 2016년 판에 등재됐다.

**고영린(인테리어디자인전공) 교수**  
고 교수는 지난 2일 부터 5일까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IASDR(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ocieties of Design Research) 컨퍼런스 포스터 세션에서 "The Herstory of Sin-saimdang (1504-1551) as a Prototype of an Eco-Feminist Designer"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정성훈(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정 교수는 지난 6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2015 멀티미디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자동차작곡시스템에서 다수의 곡을 이용한 작곡 방법"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김형수(산업경영공학과) 교수**  
김 교수는 글로벌 CFM 전문가 8인 중 한 명으로 선정돼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에 등록됐다.

**노광현(산업경영공학과) 교수**  
노 교수는 지난 13일 열린 2015년도 산학연 서울지역협회 우수과제 전시회 시상식에서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호근(융복합교양교육과정) 교수**  
공 교수는 지난 달 19일 2015년 서울시 지방공무원(7급~9급) 임용 면접위원으로 위촉됐다.

# 제31대 총학생회 '너목들' 선본 단독 출마

제31대 총학생회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이하 너목들)'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의 손성민(경제 3) 정학생회장 후보, 배성민(경영 3) 부학생회장 후보가 단독 입후보했다. 지난 13일 이들과 만나 출마계기와 공약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너목들의 출마 계기는

작년에는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유예, 올해 1학기에는 학교 통·폐합, 그리고 얼마전 대학구조개혁 평가 D+ 등급을 받아 부실대학학인이 찍혔다. 지난 1학기 학교 통·폐합이 진행될 때 우촌관 진리관 사이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 이때 학생회도 함께 시위에 동참했다. 그때까지는 학생회가 제 구실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안심이었다. 하지만 2학기에 들어서 분교는 'D+'라는 오명을 얻었고, 처음에는 교수협의회, 교직원, 학생대표 등이 대자보를 붙이며 입장을 표명했다. 임시이사도 이후에도 학교는 뚜렷한 대책이 없었고 이에 고충수 교수는 단식농성에 돌입, 교수협의회와 일반 학우들은 자발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학생대표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에 '괴연' 우리의 학생대표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가라는 자보를 붙이기도 했다. 물론 총학생회장의 부재도 이유가 되겠지만, 총대의장이 총학생회장의 권한을 겸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학생대표로서 앞장서 행동하

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안타까웠다.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암묵적 수용일 뿐 어떠한 변화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앞장서서 학교의 위기를 함께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해서 출마하게 되었다.

## 너목들의 기조는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선본명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학우들의 목소리와 '학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소통창구가 되려고 한다. 지금까지의 학생회는 소통이 부족한 학생회였다. 그렇기에 학생회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들과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는 무관심으로 이어졌다. 학생들 개개인과 소통할 수 있는 총학생회를 꾸려나가려고 한다. '백지공약, '한성, 마음의 편지' 등이 '소통'이라는 우리의 기조를 반영한 대표적인 공약이다. 구체적으로 '공백대자보'(가칭) 공백이 있는 대자보를 주기적으로 설치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적을 수 있도록 하고, 낙산의 메아리 커뮤니티에 익명게시판을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자보와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들을 정리하여 답변도 달고, 학교 게시판 및 낙산의 메아리에 공개하려고 한다.

'너목들'의 총학생회 운영 방안은 총학생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겸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학생대표로서 앞장서 행동하

특정 단체 학생으로 몰려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에 학생회가 아닌 단체 학생들의 이해가 힘들었을 것이다. 너목들은 한쪽 단대로 편파되어 있는 학생회가 아닌 인·사·에·공의 학생을 학생회 국원으로 뽑아 전반적으로 모든 학과를 아우를 수 있는 학생회를 구성하려고 한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알아가는 것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너목들의 핵심공약은

'대학평가 후속계획 정보공개', 'A 학점 비율 30% 복구', '전공이수학점 정상화'이다. 우리학교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소위 말하는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학생들은 몹시 불안에 떨고 있다. 지금 학교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대학본부에서 학교의 상황과 우리학교의 강점과 약점, 보완계획 등 학교의 현 상황과 대응책, 계획을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도 학교를 믿고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A학점 비율'의 경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A학점 비율 20'는 학생들의 전체 평점을 낮출 뿐 어떤 실익도 없다. 그러므로 다시 'A학점 비율을 30%로 복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학교 타대에 비해 전공이수학점이 과도하게 높다. 과도한 전공이수학점을 조금 낮춰 부담을 줄이고 취업과 관련된 실무를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을



▲ (좌)부학생회장 후보 배성민(경영 3), (우)정학생회장 후보 손성민(경제 3)

구축하면 학문과 취업을 모두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공약은 내년에 종합관이 완공되기 때문에 적기라고 생각한다"

## '경력 없는 부후보'라는 우려도 있다

학생회 경험이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장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의 경험자들의 생각이 아닌 일반 학생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반대로 정학생회장 후보는 학생회 경험이 있어 학교의 전반적인 체제나 업무수행에 있어 능숙하다. 서로 완충해서 이룰 수 있는 것

이 많다고 생각한다.

## '너목들의 각오는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구라고 생각한다. '총학생회장은 급진적인 행령버리를 한다'는 생각이 만연하다. 이런 인식을 바꾸어 학생들과 소통하고 권익을 대변하는 총학생회를 새로 그릴 것이다. 또한 '높은 자리에 서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출마를 결심했을 때의 초심, 아래에서 봤던 그 부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한성대 기자 kmgrook@hansung.ac.kr

# '왜 핀란드 교육인가?' 국제화 프로그램 특강 열려

지난 10월 27일 오전 10시 미래관 DLC에서는 국제화 프로그램 특강이 열렸다. 국제화 프로그램 특강은 교직원연대회의와 더불어 교직원에서 매 해 진행하고 있는 행사다. 이번 특강은 교육 선진국 중 하나인 핀란드를 독창적 시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핀란드는 작은 나라임에도 국가 경쟁력 수와 국제 학업성취도 수준을 최상위로 유지하고 있다. 특강은 김병찬(경희대학교) 교수가 '왜 핀란드 교육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에 앞서 김병찬(경희대학교) 교수는 "핀란드 헬싱키 대학에서 교환교수로 지내면서 핀란드 교육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며 "강연을 통해 학생들이 핀

란드 교육을 피상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연은 '핀란드 교육이 주목받는 이유', '핀란드 교육의 실제', '핀란드 교육의 특징 및 한계', '핀란드 교육이 한국 교육에 주는 시사점' 순으로 진행되었다. 강연을 들은 이윤경(영어영문 3) 학생은 "핀란드 교육을 주제로 한 TV 프로그램을 인상 깊게 봐 핀란드 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었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가 교육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면서 핀란드에 가보고 싶어졌다"고 강연 소감을 전했다.

김민정 기자 kmj@hansung.ac.kr

# 한성대학교 한국어과정, 2015 가을 학기 수료식 가져



한성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과정 2015 가을학기 수료식이 지난 6일 오전 10시 미래관 DLC에서 열렸다. 고충수 언어교육원 원장은 "따뜻한 곳에서 온 학생들은 건강 조심하시고 방학 동안에도 한국어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라" 며 독려의 말을 남겼다.

김민정 기자 kmj@hansung.ac.kr

# '6·25 전쟁과 미아리고개' 학술회의 열려

지난 11월 6일 오후 1시 30분부터 본교 창의관 소강당에서 '6·25 전쟁과 미아리고개'라는 제목의 학술회의가 열렸다. 이번 학술회의는 국가보훈처, 본교 역사문화학부의 후원과 성북문화원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학술회의에는 김유석 합동군사대학교 전쟁사 교관과 남보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등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 6·25 전쟁 참전 유공자들과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 회원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6·25 전쟁 시기 월·남북의 실상', '6·25 전쟁과 1950년대의 대중가요'를 주제로 한 학술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성북문화원의 박수진 함토사연구팀 팀장은 "그동안 지역의 특정 공간을 소재로 한 학술회의는 많지 않았다. 또 큰 사건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작은 사건들은 다뤄지지 않았다"며 "하지만 미아리 고개는 우리가 사는 지역이고, 본래 작은 사건들이 모여 큰 사건이 되는 법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셔 주제와 관련된 학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회의를 열게 됐다"고 이번 학술대회가 가지는 의미를 전했다.

김민정 기자 kmj@hansung.ac.kr

# 제4회 외국인 한국어 뽐내기 대회 성황리에 개최돼



지난 10월 31일 1시 토요일 본교 낙산관 대강당에서 본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과정이 주관한 '제4회 외국인 한국어 뽐내기 대회'가 열렸다.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생, 직장인, 가정주부 등 다양한 직업군의 외국인이 참여했다.

정태원 임시 총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그동안 이 대회를 통해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 실력을 뽐내며 서로 화합하는 다문화 사회를 성공적으로 시행해왔다"며 "오늘 대회에서도 외국인 참가자들이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을 공유함으로써 한국인과 외국

인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생활'이었다. 대회 참여자들은 뉴스와 뮤지컬, 연극과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주제에 맞는 무대를 펼쳤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베테랑팀은 '무서운 한국 음식'이라는 주제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외국인 이 '할머니 빼 해장국'과 '눈감사탕' 등의 음식을 단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생기는 해프닝을 연극으로 다뤄 관객들의 웃음을 유발했다. 대회의 평가기준은 한국어 구사 능력과 표현 능력, 발표 내용 구성력, 발

김민정 기자 kmj@hansung.ac.kr

# 본교 역사문화학부, 국정 교과서 반대 서명 운동 벌여

본교 역사문화학부에서 출범한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 탐구관 앞 부스를 통해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 운동을 벌였다. 이 서명 운동에는 본교 학생 약 600명이 참여했다. 서명 운동이 끝난 31일 토요일 4시 30분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는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대회가 열렸다. 본교 비대위는 서명 운동의 연장선상으로 대학생 대회를 홍보해 본교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대학생 시위에 참여한 이정현(역사문화 3) 학생은 "하나의 시각으로 서술돼 지라나는 청소년들의 사고를 협소하게 만드는 국정교과서에 반대하기 위해 시위에 참여했다"며 "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였고 반대 시위를 보고 욕을 하는 시민들이 있어 힘들었다. 하지만 다양한 계

층의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한 것을 보고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이날 시위에는 본교 학생 약 40여명이 참여했으며 시위는 6시 범국민 촛불시위와 결합해 늦은 시간까지 진행됐다. 한편 본교 비대위는 국정교과서 확정이 고시된 11월 3일 이후에도 계속 반대 운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11일에는 광화문 광장 촛불시위에 참여해 반대 운동을 지속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동맹휴학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송원근(역사문화 2) 비대위 위원장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서명 운동을 비롯한 시위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국정 교과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민정 기자 kmj@hansung.ac.kr

## 발표능력 함양을 위한

# 2015-2 학습법 워크숍

### 발표와 면접 '스피치 실행을 중심으로'

- 강사: 오미영 강사 (가천대 교수, 전 아나운서)
- 장소: 미래관 B103호
- 시간: 11월 19일(목) 16:00~18:00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교내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참여 시 소정의 기념품 및 한성에듀포인트 지급
- 문의 : 교육역량개발센터 (02-760-4458)

HANSUNG UNIVERSITY  
교육역량개발센터

#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45주기, 지금 우리나라 청년노동환경은?



▲ 일명 '전태일거리'라고 불리는 서울대리위전태일동상과 평화시장 일류의 모습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 다리 위에서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이 불꽃처럼 피어났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던 그는 피복공장 재단사 22세 청년, 전태일이다. "못 다 이룬 꿈을 꼭 이뤄달라"는 아들의 유언에 노동자들과 함께했던 이소선 여사는 지난 2011년 9월 3일 눈을 감았다. 전태일 재단은 전태일과 이소선 여사를 추모하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전태일이소선 추모기간'으로 지정했다. 전태일 45주기를 맞이한 올해, 전태일의 의지를 되새기며 우리나라 청년노동환경을 돌아보고자 한다.

## 불합리한 노동환경에 맞선 전태일

전태일은 불합리한 노동환경 개선을 주장하며 분신을 선택했다. 대구에서 태어난 전태일은 6·25전쟁으로 피난간 부산에서 아버지가 파산해 서울로 올라왔다. 이후,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전태일은 아버지의 빚으로 학업을 그만두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다. 17살이 되던 1965년, 전태일은 청계천의 평화시장에서 미싱사로 일하기 시작한다. 이후,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은 같이 일하던 어린 소녀들의 열악한 상황을 지켜보며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진다. 1968년, 전태일은 '바보회'를 만들어 평화시장의 노동환경 조사와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리며 해고를 당하게 된다. 1970년 평화시장에 돌아온 전태일은 '삼동회를 조직한다. 이후, 11월 13일 개최된 시위가 경찰의 방해로 무산되자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분신해 숨을 거뒀다.

##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청년노동환경

전태일이 분신하면서 개선하려고 했던 노동환경. 45년이 지난 지금 청년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어떻게? 45년 전은 노동자의 노동권 자체가 무시되던 시절이었다. 이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진행되면서 노동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주휴수당 미지급이나 최저임금 위반 등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15년 11월 현재 최저임금은 5,580원이다. 정부는 오는 2016년에는 2015년보다 8.1% 인상한 6,0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은 계속해 인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물가가 반영해 볼 때 높은 편이 아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은 대부분 최저임

금을 받고 일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조차도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5일 발간한 《노동리뷰》 10월호에 따르면 청년층 중에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근로자 비중은 15.6%로 전년대비 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 A씨는 주말 오전에는 편의점에서, 오후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빵집에서만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녀는 최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A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인 5,580원이 안 된다. 처음부터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시작했다"라며 "주말에 아르바이트 2개를 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손님이 없으면 공부도 할 수 있어 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또한 요즘 청년노동환경을 대변하는 것이 열정페이다. 열정페이란 어려운 취업현실을 가리키는 신조어로,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을 일컫는다. 열정페이가 빈번한 무급인턴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법이나 판례에서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기원(청년유니온) 대학생팀장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과도기 노동에서 나타나는 '교육'과 '노동'을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한 규정이나 분류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문제는 외국의 인턴십에 대한 규정을 인용하는 것을 해답으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규직의 임무를 대체해서는 안되며, 특수한 업무보다 공통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기준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를 하나라도 어길 경우 교육이 아니라 노동으로 보고있다"라고 설명했다.

## 전태일과 같은 길을 걷는 청년노동조합, 청년유니온

전태일처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노동조합이 있다. 바로 청년유니온이다. 청년유니온은 2010년 3월에 창립된 세대별 노동조합이다. 1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라면 실업자, 비정규직, 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기원 대학생팀장은 "취업 경쟁과 학자금대출 등의 현실이 가하러 압박 속에서도 주변부 노동을 전전해 야만 하는 청년들의 상황을 직접 이야기하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며 "새로운 노동조합의 형식으로 기존의

노동조합이 포괄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삶을 대변하고자 했다"고 설립 목적을 설명했다. 이들은 청년들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보장, 생활안정을 위한 기획사업과 입법활동, 그에 관련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주제의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획사업과 함께 청년유니온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기원 대학생팀장은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적정한 임금과 고용안정, 인간적인 노동환경을 보장받으며 내일을 계획하며 살 수 있는 청년의 삶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라며 청년유니온이 꿈꾸는 청년노동환경을 밝혔다.

## 청년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1일, 청년고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취업준비생 및 대학생들과 함께 '청년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기원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과 함께 '청년고용문제, 청년과 함께 길을 만든다'를 주제로 청년취업 애로사항과 청년고용활성화를 위한 방안, 청년노동시장 근로조건실태 및 해결책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 7월과 8월 청년청소노동자들의 아르바이트 노동에 대한 노동권 위반과 인권 유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약 2개월 간의 조사결과를 지난 9월 23일에 발표했다. 39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위광고 34개소 ▲근로계약서 미작성 289개소 ▲연장·야간·휴일 등 가산수당 미부여 113개소 ▲최저임금 위반 55개소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사 항목 외에도 지각비 1만원 부과, 욕설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조사 자료를 앞으로 노동환경과 노동인권 개선 캠페인, 아르바이트생 권리보호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에서는 한 달 간 열리는 '2015 서울시 일자리 대장정'의 첫 날인 10월 7일에 아르바이트 청년 간담회와 둘째 날인 10월 8일에 '노동조건개선토론회'를 개최했다. '아르바이트 청년 간담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들을 직접 만나며 청년노동환경의 고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노동조건개선토론회'에서는

청년 일자리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노동시장 구조 방안을 합의하기 위한 노사정 협상이 진행됐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노동유연성 확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노동계는 "이해 해고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지난 7월 27일 정부가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청년 고용질병 해소 종합대책' 역시 인턴, 수습 등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회의에서 상당히 개선이 되었지만 현재 회의의 속기록이 공개되지 않고 방영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 4월, 장하나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 청년 노동자가 이어나가야 할 전태일의 의지

지난 13일, 전태일 열사의 추모식이 남양주 모란공원에서 열렸다. 전태일이 분신한지 45년이 지난 현재, 청년들은 그의 어떤 점을 본받아야 할까. 박계현(전태일 재단) 사무총장은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통해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계현 사무총장은 "전태일은 노동법을 공부하기 위해 한자부터 배웠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노동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부족하다. 현재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노동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며 "흔히들 노동자를 하층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풍토가 교육을 통해 바뀌어야 한다. 선생님도, 교수도, 경찰도 모두 노동자다"라고 말했다.

이기원 대학생팀장 역시 "일하는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이 노동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보인다. 노동인권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노동인권교육에 대해 강조했다. 현재 청년노동환경은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 양산과 쉼없는 일자리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사회 전체에서 개선되는 움직임이 있어야 하지 않나 청년들이 45년 전 전태일처럼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직접 행동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현정은 기자 hje7657@hansung.ac.kr

## 알아라

### 맥줏집 시비, 형사처벌까지 안 가려면

#대학생 한성남(가명)은 맥줏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에 앉은 학생과 시비가 붙었다. 말싸움을 벌이던 두 사람은 드잡이를 하다가, 서로 주먹이 오가기도 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리기는 했지만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다. 쌍방 폭행이 인정된 두 사람은 재판에 발기에 이르렀다. 이대로 가다간 두 사람 모두 전과자가 되게 생겼다.

두 사람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법으로 한 번 따져보자. 형사소송은 국가가 범죄라고 정해놓은 사항을 누군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이다. 예컨대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절도, 사기 같은 범죄를 형법에 처벌하도록 규정해놓고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유죄나 무죄를 놓고 재판을 하는 것이다. 가해자나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가 개입하여 징역, 벌금 등의 형벌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형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는 민사소송과 다르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때로는 양심한 힘을 발휘한다. 수사를 종결하고, 재판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범죄가 있다. 바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이다. 이런 죄를 지었다면 합의가 관건이다.

친고죄란 고소가 형사재판의 요건인 죄를 말한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판사도 무죄 판단조차 할 수 없는 죄가 친고죄다. 모욕죄, 저작권법 위반 등이 해당된다. 피해자의 뜻과는 무관하게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요건으로 한다. 참고로 2013년 6월 이전에는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도 친고죄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현재는 친고죄에서 제외되었다. 성범죄는 피해자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친고죄와 유사한 죄로 반의사불벌죄가 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죄를 따질 수 없는 죄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로 옮겼을 때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이다. 예컨대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절도, 사기 같은 범죄를 형법에 처벌하도록 규정해놓고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유죄나 무죄를 놓고 재판을 하는 것이다. 가해자나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가 개입하여 징역, 벌금 등의 형벌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형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는 민사소송과 다르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때로는 양심한 힘을 발휘한다. 수사를 종결하고, 재판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범죄가 있다. 바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이다. 이런 죄를 지었다면 합의가 관건이다.

일 고소인과 합의를 보았다면 반드시 합의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취하거나 처벌원서를 제출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에서 해결책을 고민해보자. 한성남씨의 단순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이다. 따라서 서로 폭행한 두 사람이 합의하고 수사기관에 처벌원서를 내면 해결된다. 사소한 시비로 폭행 전과가 남지 않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 술자리 폭행 사건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특히나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릴 때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증거가 없다면 쌍방이 서로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잦다. 이럴 땐 다소 억울하더라도 합의가 상책이다.

정영은씨가 위반한 저작권법은 친고죄이다. 저작권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더 이상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갈 일이 없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전과자가 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이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정중하게 사과를 하거나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최소한의 금전적인 배상을 해주고 마무리를 짓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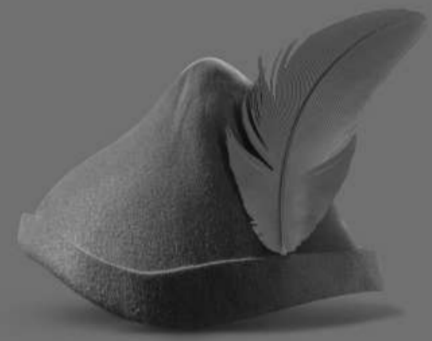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도 합의의 여부는 판사가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절도, 사기 등 금전 범죄는 피해 회복 여부가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때도 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고 피해액이 많지 않다면 변호사 선임할 돈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김영국(법원공무원, 법률칼럼니스트)



한성대학교 HANSUNG UNIVERSITY

"네버 엔딩 상상력"



## 나이 들지 않는 무한 상상력을 가졌습니까?

식지 않는 열정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성공의 클리어마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끝없는 상상력을 가진 당신이라면 실용교육으로 앞서가는 한성대 대학원에서 시작하십시오.

### 2016학년도 전기 한성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편입생 모집

대학원구분	학위명	대학원명	문의처
일반석사	박사	일반대학원(박사)	(02)760-4271
	석사	일반대학원(석사)	(02)760-4271
특수석사	석사	경영대학원	(02)760-5844
		행정대학원	(02)760-5845
		예술대학원	(02)760-4097
		국립과학사관대학원	(02)760-4318
		자신사상조리대학원	(02)760-5867
		부동산대학원	(02)760-5876
교육대학원	(02)760-58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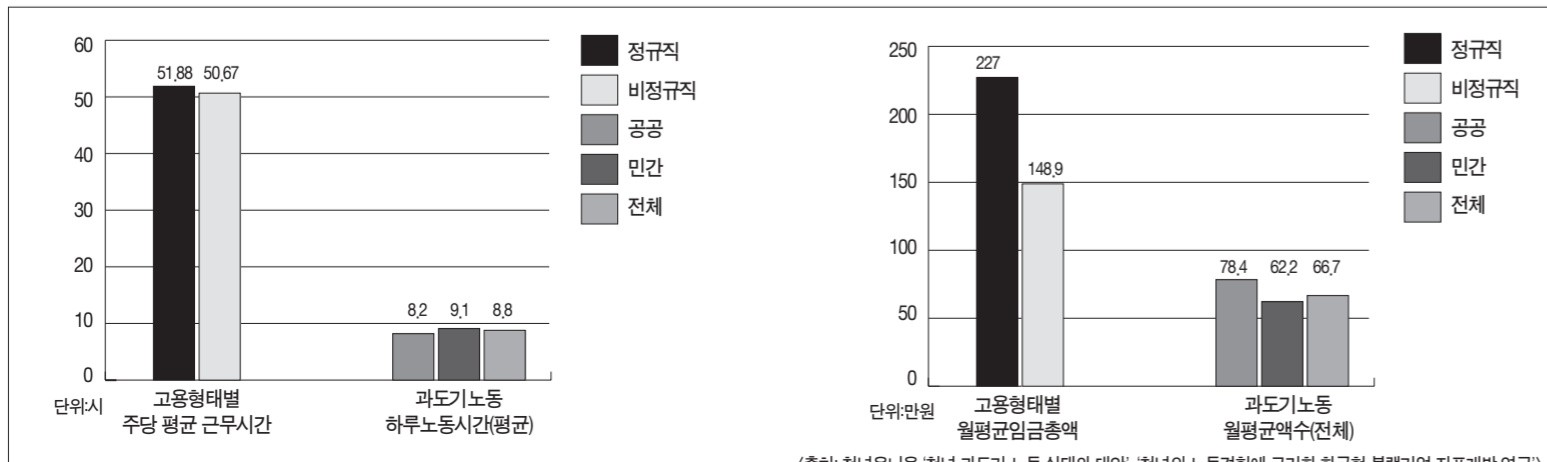
#### 원서접수 및 발표

- 원서접수기간 | 2015.11.23(월) 10:00~11.30(월) 17:00
- 접수 방법 | 대학원 홈페이지(http://gs.hansung.ac.kr) 모집요강 확인 후, 유웨이(이플라이)(http://www.uwayapply.com) 인터넷 접수
- 면접전형일 | 2015.12.5(토) 10:00~(화요일 변동가능)
- 합격 발표 | 2015.12.18(금) 16시 이후 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 바랍니다.

상상력 인류미래- 한성대학교 대학원 02876 서울신성동 신성로 16길 116 http://gs.hansung.ac.kr

http://gs.hansung.ac.kr



# 단장의 미아리고개를 아시나요?



교단에서

강성봉  
(한성대학교  
역사와 문명 강사)

지난 11월 6일 한성대학교 창의관 소극장에서 '6·25전쟁과 미아리고개'라는 주제로 학술회의가 열렸다.

광복 70주년, 한국전쟁 65주년을 기념하여 성북문화원이 주최하고 국가보훈처와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가 후원한 학술대회였다. 한성대학교가 소재한 성북구 지역은 서울에서 종로구 다음으로 역사와 문화유산, 예술인들의 발자취를 많이 느낄 수 있는 문화 콘텐츠 자원의 보고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돈암동과 길음동 사이에 걸쳐 있는 미아리고개는 그 지리적 중요성으로 인해 어느 곳보다 많은 사연과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공간이 되었다.

예로부터 서울의 동북 관문 역할을 했던 미아리고개는 6·25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자, 인민군 후퇴시 남한의 주요 인사들이 북으로 끌려갈 때 거친 길목이었다. 전쟁이 낳은 히트곡 '단장의 미아리고개'의 가사는 작사가 반아월 선생이 한국전쟁 당시

이 고개에서 딸을 잃은 아픔을 장자가 끊어진 고통에 비유하여 쓴 것이다.

학술회의는 이러한 미아리고개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시민, 대학생들에게 관련 연구성과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주는 3가지였다. 6·25전쟁 당시 미아리고개를 중심으로 한 서울 외곽 방어작전, 당시 월남북의 실상, 1950년대 대중가요의 동향. 특히 마지막 주제가 인상 깊었다.

성공회대 이준희 교수는 1950년대 우리 대중가요 음원을 가져와 특유의 청량한 목소리로 소개해 주었다. 예전부터 느껴온 것이지만 훌륭한 노래는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 된다는 생각을 이 교수의 발표에서 재확인할 수 있었다. '군세아라 금순아'라는 짧은 노래 속에 한국전쟁의 모든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실파하는 대목에서는 절로 감동이 나왔다.

이와 함께 나를 포함한 우리 역사학자들이 한국사에 대한 문화사적 접근을 너무 소

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 모든 역사는 문화사로 수렴되는 것 아닌가 하는 반성도 뒤따랐다. 발표를 들으며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진 것은 여기에 참석했던 한성대 학생들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자칫 깊은 지루함의 나락에 빠질 수 있는 학술회의인지라 순서 중간에 음악 공연을 넣었다. 밴드 빈티지 프랭키는 1950년대 가요들을 편곡해 불렀는데 결국 6·25 전쟁 노병들이 눈물을 흘렸다. 이에 앞서 중요무형 문화재 제19호 선소리 산타령 전수교육조교 이경자 선생이 부른 신민요 '해방가'는 노래로 쓴 현대사였다. 노래는 이렇게 끝난다. "옛날 옛적 김유신 장군은 삼국통일을 이루셨는데 우리나라 남과 북은 어느 시절에 통일이 되느냐" 진짜 무엇 하나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시간들이었다.

\* 성공적인 학술회의를 위해 힘써주신 한성대학교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 사 설 ·

### 백 투더 퓨처

최근 방영된 TV 프로그램에서 1989년에 개봉된 SF영화 'Back To The Future'를 다뤘다. 주인공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스토리로 그 당시 인기가 폭발적이었다. 이 영화에서 미래로 이동한 시점이 2015년 10월 21일인데 영화 속 많은 미래 제품들이 현실화되었다는 내용이었다. 후버보드를 이용해 하늘을 날고, 드론이 애완견을 산책시키고, 자동차무선시스템을 통해 음식 메뉴를 주문하고, 전자안경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공상과학 영화 속 장면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기술 발전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은 점점 편리해지고 윤택해지겠지만 한편으로 국가나 기업 혹은 개인들이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기란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흘러가는 시간에 몸을 맡기고 인간과 사물이 통합되어가는 디지털 네트워크속에서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서비스에 둘러싸여 원자화된 개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본인이 대학원을 다니던 1990년대 중후반 시기에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도로를 주행하는 무인자동차를 연구했다. 당시 이 기술 개발의 중심에 있었지만 상용화는 본인이 60대가 되는 2030년경에나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센서와 지능화된 소프트웨어 등의 급속한 기술 진보와 구글 및 유명 자동차 회사의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1~2년내에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이며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까에 대한 답을 지명한 미래학자나 공상과학 영화에게서만 찾지 말고 우리 스스로 찾아가면 어떨까? 백 투더 퓨처 영화속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다녀오는 능력을 키워보자. 지하철도를 타고 학교를 오가는 시간에 게임이나 카톡은 잠시 접고 미래를 다녀오는 것이다. 가까운 미래부터 먼 미래까지 점진적으로 미래에서 특정한 것들을 모아 놓으면 그것이 결국 내 미래가 아닐까?

## · 삼 학 송 ·

### 무관심으로 일관하지 않았는가

타대 신문사 편집국장이 인력난으로 신문사를 이끌어 나갈 후배가 없다며 하소연하던 것이 지난 학기였다. 다음 학기에 수습기자를 모집하면 될 것이니 이번 학기만 인력난을 견뎌 보라며 격려했다.

좋아질 것이라며 스스로 위로했다. 하지만 2학기 상황은 우리의 기대를 빗나갔다. 11월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는 '총학생회', '예술대 학생회', '공과대 학생회'뿐이다. '총대의원회', '학생복지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 '인문대 학생회', '사회과학대 학생회'는 후보자가 없는 상태다. 총학생회 후보는 나왔지만 총학생회와 함께 학생을 대변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앙기구의 후보자가 없는 상태에 직면했다.

학생자치기구에 몸담고 있던 고학번 선배가 학생회를 이끌어 나갈 후배가 없다고 후시 신문에 남는 인원 없느냐며 쓴 농담을 건넸던 게 지난 학기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음 학기에는 새로운 학생회가 꾸려질 테니 그때까지만 참아보라며 심심한 격려를 전했다.

그나마 나온 세 후보도 학생들의 지지와 참여 없으면 지난해 총선과 같이 투표율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투표함을 열어보지 못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학생대표의 부재에 대해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렇다. 우리의 올 한 해는 힘들었다. 지난해 11월 총선에서부터 3월 보궐선거까지 무산되어 우리는 올해 총학생회 없이 총대의장이 총학생회의 역할을 겸임하게 됐다. 그 와중에 학교는 학과 통·폐합을 단행했고,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등급을 맞아 소위 말하는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혔다. 학생대표가 실질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대변해줄 학생대표는 어디에도 없었다. 우리는 총학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도 우리는 총학이 없어서 힘든 것이라고, 내년엔 총학이 생기면 다

이렇게 가다 간 대학사회의 상징인 학생자치활동이 소리 없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다. 파도가 쳐서 모래성이 무너질 것 같다면 손으로 막는 시도라도 해봐야 한다. 스스로에게도 물어본다. '나는 무관심으로 일관하지 않았는가.'



기자수첩

현정은  
(무역 3)

소통, 21세기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단어다. "소통을 해야 사회와 조직이 발전한다"라는 소리를 대학 입학 후 끊임없이 들었다. 이를 증명하듯이 우리 주위에서는 소통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수업이나 도서가 무수히 소비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소통은 정말 우리 사회나 우리 학교에서나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지난달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였다. 지난달 12일, 교육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를 한 후, 우리 사회 전반은 찬반 의견으로 양분되며 전국이 시끌시끌했다. 전국 각지에서는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는 지난 2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으로 선포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들겠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는 당일인 2일,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찬성은 32.3%, 반

대는 59%, 무응답 8.7%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혀 소통할 마음이 없어 보였다. 반대 의견을 표명하려면 최근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편지와 팩스로만 의견을 보내야 했다. 또한 정부는 행정예고 기간에 예비비로 국정교과서 편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일찍 감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끝마친 듯 보였다. 심지어 교육부는 지난 2일 행정예고 기간을 끝마치고 5일 예정이었던 확정 고시를 3일로 당겨 발표해 국정교과서 집필에 들어갔다.

소통이 허울뿐인 구호로만 느껴진 것은 국정화 이슈뿐만이 아니었다. 나는 우리 학교에서도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다. 지난달 23일, 강신일 총장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한 2차 이사회가 열렸다. 이에 앞서, 강신일 총장과 이사장 사표를 촉구하며 한국어문학부 교수가 3일 동안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2차 이사회 당일에는 학생들과 교수협의회가 시위를 펼쳤으며 이들은 구호를 외치며 이사장실 앞까지 자신들의 의견을 전했다. 2차 이사회에서는 강신일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지만 2명의 감사 중 한 명을 임시 총장을 내세우는 전무후무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교수협의회는 대학의 자율권을 뺏었다며 이사회를 비난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결정 내용조차 학생들에게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이사회는 알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1차 이사회를 추석 기간에, 2차 이사회를 중간 시험기간에 열었다.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지 못하게 한 의도일까? 학교 다른 구성원과 소통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걸까?

그렇게 중요하다던 소통, 내가 속한 사회에서도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에서도 소통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게 중요하던 소통, 나는 어딜 가야 소통할 수 있을까?

#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낙산에 올라

박진태  
(한국어문 4)

불과 몇 세기 전만 하더라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하여 그 힘을 만방에 떨치던 나라가 있다. 전 세계로 영역을 뻗어나가던 대영제국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들은 지구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했고, 저 명칭은 그야말로 막강한 국력을 표현하는 문장이 되었다.

얼마 전, 문득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저 명칭이 떠올랐다. 그것도 전혀 다른 의미로 말이다. 늦은 시간까지 빛을 내는 수많은 빌딩 숲 속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이 떠오른 것은 왜일까. 분명 국력이 막강하다는 의미로 생각난 건 아닐 테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커뮤니티 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면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단어 중 하나가 "헬조선"이다. 워낙 민감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져있는 단어인 지라 과연 이렇게까지 쉽게 쓰여도 되는 문체인가 싶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인터넷 등지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많다는 뜻도 될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저 단어 안에는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는 핵심적인 문제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 나 같은 경우,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접했던 것이 직장 내의 야근 문화 얘기를 하면서였다. 대체 그놈의 야근이 뭐기에 대한민국을 지옥 같다고 표현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반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겠지만, 그 사정을 놓고 보면 이해가 될 때도 해서 쓴웃음이 난다.

2013년 기준 대한민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9.9달러. 1위인 룩셈부르크에 비하면 반도 안 될 뿐더러, OECD 가입국 34개국의 평균인 40.5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해답은 간단하다. 노동 시간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들을 기준으로 룩셈부르크는 연간 1,367시간, 가까운 일본도

한 1,735시간 등으로 1,800시간을 넘지 않는 데 반해, 대한민국은 무려 2,079시간이다. 그만큼 야근과 주말 추가근무가 많다는 뜻이고, 다시 말하면 이런 야근 문화가 생산성을 깎아먹고 있다는 뜻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빌딩 숲의 불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과도한 야근의 비효율성을 알고 있을 텐데도, 여전히 야근은 계속되고 근로자들은 지쳐만 간다. 꺼지지 않는 형광등 불빛이 가정집의 것일까 바라지만, 현실은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우리는 언제 "해가 지는 나라"를 맞이할 수 있을까. 그 시대가 조금이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우리들이 일터로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창문의 불빛은 꺼지지 않고 있다.

# 한성대신문사 기자들에게 응원을 보내며



독자칼럼

황지현  
(무역 3)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도 과제가 끊이지 않아 바쁘게 보내고 있던 중, 학교 내에서는 여러 가지의 소란 아닌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고민하던 도중 한성대 신문을 보게 되었다.

'나같은 경우는 내가 스스로 한성대 신문을 찾아서 보게 된 것이, 부끄럽지만 이번이 처음이었다. 단순히 교내 정보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에서 선택한 한성대 신문은 생각보다 다양한 정보를 다루고 있었고, 다루고 있는 내용 또한 굉장히 흥미로웠다.

먼저 교내 신문답게 1면에는 현재 교내에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것들로 눈길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 다음 내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옆의 지면안내부분이었다.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모두가 알 만한 내용도 있었고 반대로 특정이 아닌면 모를 수도 있을 만한 정보를 모두에게 알

려주고 있었다.

2면 보도부분에서는 대의원총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기사가 있었다. 이 기사야말로 특정이 아니더라도 모를 수도 있을 일이다. 이런 내용을 모두에게 아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알려준 것이 굉장히 감사하다고도 여겼다.

그리고 여러 내용이 있었지만, 나처럼 신문을 자주 읽지 않고, 신문자체를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제일 흥미롭다고 느낄 부분이 문화 부분이었다. 요즘 트렌드인 '혼밥'이라는 것을 다룬 기사도 굉장히 좋은 정보였고, 독자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또한 나는 교내 신문이라 단순히 그저 글만 가득할 줄 알았던 신문에 적절히 학교 내 행사 홍보도 하고 있었고, 정말 신문과 비슷하게 간단한 그림 또는 만화로 흥미를 일으키고 있었다. 생각보다 체계적이었고 매번 이렇게 대단하고 흥미로운 신문을 발행하는

한성대신문사에 감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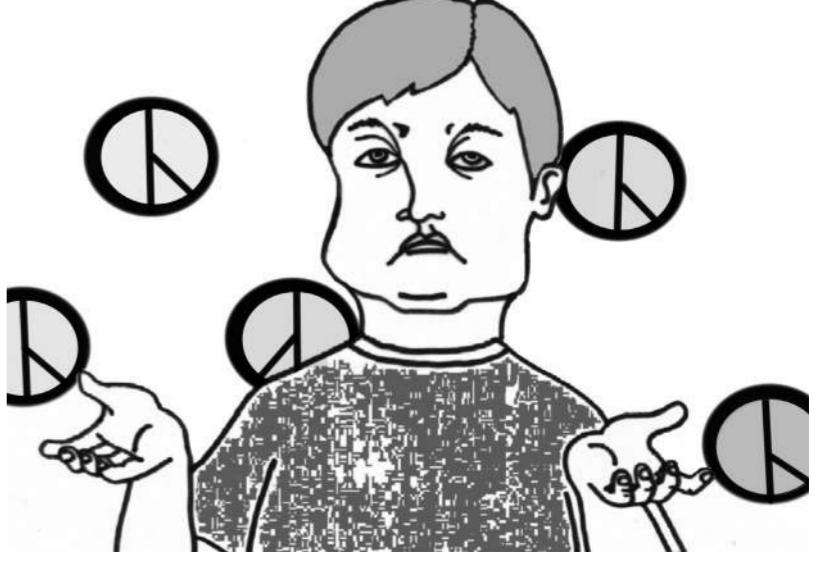
좋은 정보와 훌륭한 짜임을 보여주고 있는 한성대신문은 분명 잘 만들어진 신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신문이 나에게도 처음이고, 교내 많은 학생들이 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다. 신문 내에서 문제가 없다면, 문제는 신문사의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 신문사의 개별적인 SNS 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것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다니고 있는 학생 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였다. 너무 안타까웠다. 이렇게 좋은 신문을 많은 사람이 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안타까웠다.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매 호마다 고생하고 있는 한성대신문사는 조금은 홍보에 힘을 실어보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이 신문이 우리 교내 학생들에게 일명 '한성대학교 대신 말해드려요'나 '한성대 대나무 숲과 같은 SNS의 역할까지 나아가길 바라본다.

## 낙산만평

한지선(매디 2)

### 투표하려고 했는데 후보자가 없는데요?



# 아주 사적인 시간 **한성대학교 대학원 현대미술 전공 재학생 홍영민 작가를 만나다**

‘아주 사적인 시간’은 인터뷰 대상 선정부터 컨택까지 기자의 개인적 취향과 사심이 가득 담긴 인터뷰 코너입니다. (편집자주)

## “아트펜스의 매력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싶다”

우촌관 잔디광장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길. 종합관 공사장 펜스 위로 이어진 길은 어느 영화 속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처음부터 펜스에 프린팅이 되어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늘로 이어지는 듯한 이 길, 누가 기획했을까? 무채색의 공사장 펜스를 ‘아트펜스(Art Fence)’로 재탄생시킨 황영민(한성대학교 일원대학원 현대미술 3학기) 작가를 만났다.

### 아트펜스란 무엇인가요?

‘아트펜스(Art Fence)’란 공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림막을 설치미술의 형태로 탈바꿈한 펜스를 말합니다. 2006년 8월부터 공사장 가림막의 광고 게재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지면서 다양성과 창의성이 반영된 아트펜스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공공미술의 일환으로 꾸준히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2007년 강익중 작가의 ‘광화에 뜬 달’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 종합관 가림막에 디자인 작업을 계획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작년에 교내 종합관 신축 공사로 가림막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가림막을 볼 때마다 딱딱하고 건조하다고 느껴요. 펜스와 같이 우촌관 잔디광장을 지나는데 이 흰색의 거대한 가림막이 거대한 캔버스에 보여요. 그 순간 가림막을 재미있게 연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재현하여 시안을 만들어 봤어요. 총 8개의 시안을 회화과 교수님들과 검토했고, 그중 현재 설치된 시안을 실현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때 허은영 교수님께서 이 작업을 실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본교 시설 지원팀 교직원 선생님들의 협조를 받아 시작되었습니다.

### 종합관 가림막 디자인 계획에서부터

터 작업 완료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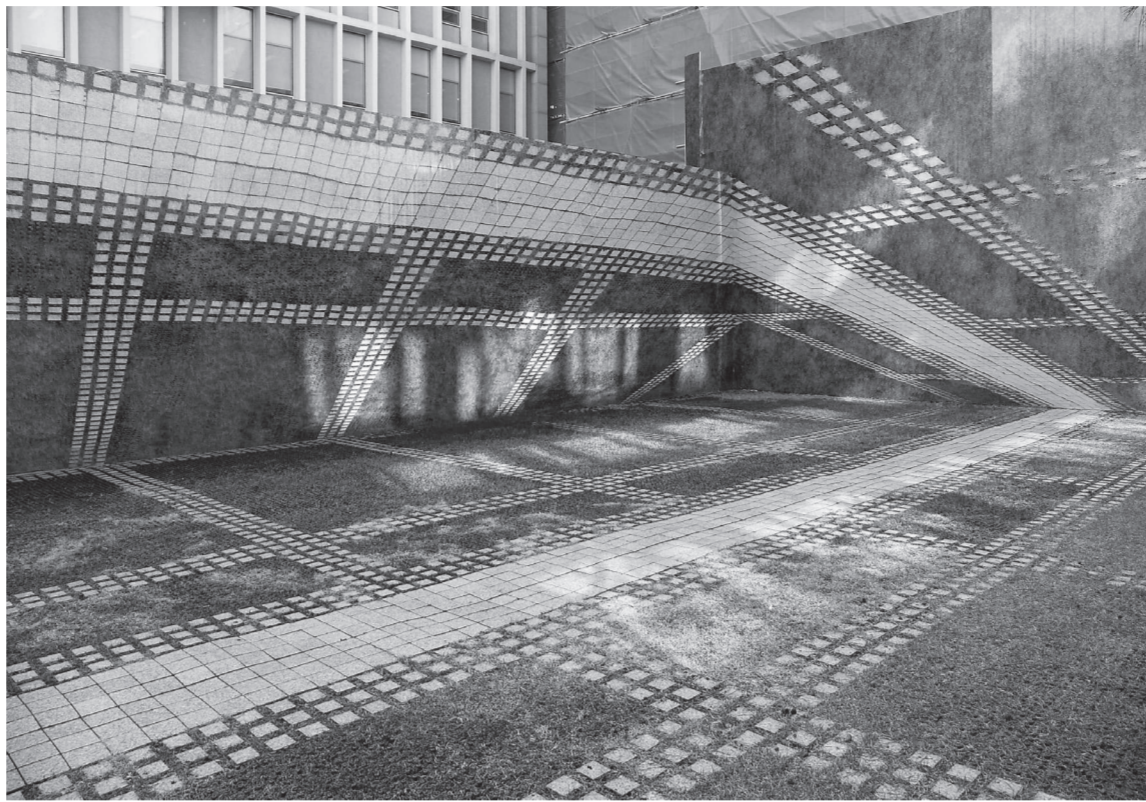
계획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서 작업했어요. 첫 단계는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단계로 종합관 가림막에 들어갈 이미지를 촬영하고, 가림막 주변 사진과 아이디어 이미지를 합성하면서 시물레이션을 했어요. 이 작업에서 선별된 아이디어가 잔디광장의 바닥 이미지를 가림막 벽에 투영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단계로는 선별된 이미지를 재현하기 위해 우촌관 잔디광장의 사이즈를 측정하고 바닥을 사진 촬영했어요. 큰 사이즈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분할해서 촬영해야 했고, 고화질로 촬영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했어요. 이때 사진작가로 활동하시는 ‘박진명 교수님’의 도움 덕분에 좋은 컷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촬영된 이미지들을 모아 1억 2천만 화소의 파노라마 이미지를 합성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단계로 잔디광장 이미지를 실사출력용으로 제작했어요. 2개월간의 실사출력 이미지 제작 기간이 있었는데, 17.15x4m, 13.3x6m로 비교적 큰 사이즈에 실감 나는 결과물을 위해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로 작업하다 보니, 제작 과정에서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촬영된 이미지를 활용하여 백지의 캔버스에 일일이 그려나가는 과정을 통해 가림막의 이미지를 다른 면으로 투영하는데 어색함이 없도록 했어요.

네 번째 단계에서는 실사출력 부착 작업인데 1월에 진행하다보니 바닥에 쌓여 있는 눈 때문에 바닥과 가림막 이미지의 핀트를 맞추는게 쉽지 않았어요. 이틀에 걸친 부착작업이 끝난 뒤, 종합관 아트펜스가 진행되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제작했어요. 유튜브에 올려놨으니 보시면 제작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한성대학교 “Replay”>라고 입력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아트펜스로 우촌관 잔디광장 바닥과 이어진 길을 표현한 것이 인상적



### 이것이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 인터스텔라(Interstellar, 2014), 인셉션(Inception, 2010)의 소재를 활용했어요. 인셉션 영화에서 도시가 솟아오르는 장면이 있는 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우촌관 잔디광장 이미지를 뒤집어본 이미지의 이질감을 아트펜스에 적용해본 것입니다. 이미지 자체로써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쾌한 발상을 유도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 보통 아트펜스에는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홍영민 작가님의 작품은 색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기획하게 된 다른 이유가 있나요?

도심에서 흔히 발견되는 가림막들을 보면서 아쉽다고 느꼈던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공사장 가림막 주변을 관찰하다 보면 재미있게 표현될 수 있는 소재가 될 만한 환경이 있었는데, 고려되지 못한 경우를 많이 봤

습니다. 기존의 공사 완료 시물레이션 사진이나 광고, 단순한 그림을 담은 가림막에서 탈바꿈하는 것이 이번 아트펜스의 주된 계획이었어요. 일반적인 가림막과는 차별성을 두고자 주변 환경과 공간의 구성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색다른 점이 표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작업을 할 때 영감은 주로 어디서 얻으시나요?

인상 깊게 감상한 영화 속의 장면을 기억해두거나, 여러 작가들의 작품집을 찾아보기도 하지만, 주로 주변 환경을 관찰을 통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평범한 일상 공간에서 우연하게 발견되는 현상이나 이미지, 소재를 메모하거나 드로잉으로 남겨놓곤 해요.

### 이번 아트펜스 작업 이전에는 어떤 예술작업을 주로 하셨나요?

이전에는 설치, 퍼포먼스, 영상작업을 주로 했어요. 퍼포먼스의 한 장면이 프로필 사진입니다. 제가 원더우

아트펜스 작업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아트펜스는 일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로 공사 규모에 따라 설치기간이 다릅니다. 일시적인 기간 동안 아트펜스를 관람할 수 있고, 완공되면 아트펜스는 철거되죠. 아트펜스가 철거되는 시점과 새로운 건물이 등장하는 시점이 맞물려 있는 것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 지금 하고있는 작품·작업 활동이 있나요?

지금은 국방부 정책 홍보과에서 파견 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주로 전시 관련 기획으로 아트펜스를 활용한 아이디어 이미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펜스 작업 외에 기존의 설치, 퍼포먼스 영상작업의 연계 전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유

명 연예인을 소재로 전시 콘셉트를 잡고, 학교 인근에서 전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꼭 해보고 싶은 작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최근에 했던 종합관 아트펜스 같은 특별한 아트펜스를 제작하고 싶어요. 일상 공간에서 특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매개체로서 대중들에게 아트펜스를 알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열정을 온도계로 측정하면 몇 도나 될까? 황영민 작가의 자유로운 움직임과 작품에 대한 열정은 그녀가 아트펜스보다 높을 것이다.

풍부한 감각, 그리고 열정으로 만들어진 종합관 아트펜스를 시작으로 대중들에게 아트펜스를 알리고 싶다는 그녀. 황영민 작가의 다음 작품이 기대된다.

한지선 기자 mongrock@hansung.ac.kr



▲홍영민 작가가 원더우먼의 모사 캐릭터로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고자 기획했던 퍼포먼스

## 한성미식회

### 낙엽 지는 가을에 커피를 그리워하네



① ‘바그다드’의 에스프레소 쇼콜라



② ‘포르투갈’의 카라멜 모카와 자몽주스  
③ ‘모리’의 그린티 라테와 쿠키스

### ‘바그다드’

에스프레소 덕후들은 항상 슬프다. 대체 왜 커피 전문점에 에스프레소는 이름도 무미건조한 ‘에스프레소’ 하나뿐이냐고. 에스프레소 종류는 우유 거품을 넣은 에스프레소 마키야토, 35~40초 동안 에스프레소를 추출한 퐁고 등 다양한데 말이다. 돈을 내고 먹었다는데 왜 팔지를 않니! 슬픔에 잠긴 에스프레소 덕후들을 위해 카페 한 곳을 추천한다. 그곳은 바로 ‘바그다드’! ‘바그다드’에는 다양한 에스프레소 메뉴가 존재한다. 에스프레소 위에 휘핑을 낭랑히 올린 에스프레소 콘과 뉴타이 카카오의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에스프레소 쇼콜라까지! 이곳이 바로 에스프레소 덕후들의 천국이고 극락이다. ‘에스프레소 넘나 맛있는 것! 하지만 양이 적어 슬퍼요’, ‘말린 과일도 맛있음!’ 등의 평가.

### ‘포르투갈’

‘아니, 대체 왜 카페에는 커피만 있나요? 카페에 가면 아이스티 말고는 먹을 게 없어!’라고 불평하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당신을 위한 카페 ‘포르투갈’! 이곳은 카페의 주메뉴는 커피라는 공식을 과감히 깬다. ‘카페 맛?’ 싶을 정도로 스무디와 과일주스, 라테, 레모네이드의 종류가 커피보다 더 많은 이곳. 하지만 놀랍게도 이곳은 원두를 ‘직접’ 볶는 흔치 않은 로스팅 카페 중 하나라고.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카페에서 나는 뿌연 연기와 시고 매캐한 냄새는 이곳이 ‘로스팅 카페’라는 증거다. ‘돈 더 추가하면 과일주스도 사이즈업, 게이득!’, ‘원두가 너무 신 것 같다’ 등의 평가.

### ‘모리’

시험이 끝나자마자 들어 닥친 과제 폭풍에 헤어나오지 못한 당신! 핫식스를 들이켜도 잠의 늪에 빠져 몸부림치는 당신! 당신을 위해 모든 커피가 투 샷으로 나오는 카페 ‘모리’를 소개한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모리’는 모든 커피가 진하게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맛보려고 카페인에 약한 사람이 ‘모리’ 커피를 마시면 하늘을 나는 기분과 심장이 떨리는 소리에 잠을 설치고 만다는 전설이 있다. ‘여기 누나 너무 예뻐요’, ‘바그다드가랑 모리 커피가 제일 맛있는 듯’, ‘내 최애는 그린티 라테’ 등의 평가.

김민정 기자 kmj@hansung.ac.kr

## 과대망상

—경영=경제학과?

글. 그림  
임태미(시각영상)



경영학과라고 했지



경제학과입니다



요즘 주가를 왜 몰라



주식을 안하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오



자네는 창업을 할텐가  
그렇다면 미래의 성공한 CEO가 되겠군



그저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 이자를 안주는 은행, 이슬람 금융

## 돈은 교환을 위한 수단일 뿐, 시간가치를 가질 수 없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은행은 예금 만기일에 맞춰 약속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준다. 이자를 받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던 돈을 은행에 맡기니 은행으로부터 이자라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당연하게 생각되는 은행이자지만 이슬람금융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열려라, 창개'하고 외치면 나타나는 알리바바의 휘황찬란한 보물고고, 그 스포츠카가 등장하는 중동 부자의 SNS, 억만장자 만수무강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슬람 돈의 이미지일 것이다. 모든 무슬림, 이슬람 국가가 부유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슬람 국가 중 대표적인 중동 산유국들의 오일머니는 이슬람 금융을 값지게 하였고, 이 금융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지난 4월 IMF의 보고에 따르면 2003년 기준 2천억 달러에서 2013년 말 기준 1조 8천억 달러로 지난 10년 동안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을 보였다. 반면 최

근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IMF는 '글로벌 경제전망이 지난 5년 동안 계속 해서 하향했다'며 세계 경제의 평균 이하의 저성장기에 대해 전했다. 바로 여기에 이슬람 금융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샤리아: 이슬람 율법

이슬람 사회의 이야기는 이들의 율법인 '샤리아'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슬람 금융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슬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먼저 짚어보자면, 이슬람은 알라 신을 믿는 종교 혹은 그 문화권을 말한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예수'가 있는 것과 유사하게 이슬람교는 '알라'라는 신을 믿고 알라의 말을 전하는 마지막 예언자이자 전달자로 '무함마드'가 있다. 무함마드가 전하는 알라의 말씀을 문서화한 성경을 '쿠란' 혹은 '코란'이라 하고 무함마드의 말과 행동을 '순나'라 한다. 순나는 '하디스'라 책에

문서화되어 전해진다. 이 쿠란과 순나를 기준으로 이슬람 사회는 균형을 지향한다. 쿠란과 순나가 곧 법이 되는 이슬람 사회 쿠란과 순나는 샤리아 학자간의 해석과 합의를 통해 이슬람 율법, 즉 샤리아를 구성한다. 무슬림은 이 샤리아 아래 존재하고 이슬람 금융도 그러하다.

현대 샤리아 학자 세이크 니잠의 말에 따르면 '이슬람 금융의 기본 원칙은 샤리아에서 강조하는 인간적인 관계에 기반한다'고 하였다. 이 말은 가장 위대한 샤리아 학자로 추앙 받는 '아부 하니파'의 이야기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은 '이슬람 은행에는 이자가 없다'란 책에서 발췌한 이야기이다.

### 고 한다.

이 여성은 자신이 파는 옷의 가치를 잘 몰랐기에 100디람의 가격을 쳐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아부 하니파는 옷의 가치를 잘 알았기에 이 여성의 무지를 이용해 이윤을 취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가격으로 쳐준 것이다. 이는 샤리아가 추구하는 공정한 거래, 정의 실현, 상호 이익 추구... 이슬람 금융이 추구하는 방향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 이슬람 금융의 세 가지 특징

이슬람 금융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가장 독특한 특징은 이슬람 금융에는 이자(리바)가 없다는 것이다.

을 대출이란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대여)하고 이자를 받아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자, 이슬람금융의 리바는 이슬람 사회에서 고리대금과 같이 여겨지며 죄악으로 여겨진다. 이슬람 사회가 규정하는 일곱 가지 죄악 범주에 살인죄와 함께 리바가 포함되어 있는 정도이다.

두 번째 특징은 불확실성을 가진 거래는 금지된다. 금융 거래에는 확실성과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과 같이 불확실성이 짙은 거래, 다른 말로 투기성향이 짙은 거래는 부당하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슬람 금융의 특징은 샤리아에 위배되는 사업에 대해 거래 금지이다. 이슬람교 사람들은

자로 하여금 구입 원가와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정 이윤을 더해 자본제공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수쿠크는 이슬람 채권을 말한다. 일반적인 채권은 투자자에게 발행자와 약속한 시점에 이자를 주는 모양이지만 이슬람 금융에서 리바가 금지되니 수쿠크는 수익금을 배당금의 형태로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가진다. 수쿠크의 특이한 부분은 일반적인 채권과 달리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다는 것이다. 자본이 필요한 채권발행자는 실물 자산을 담보처럼 SPCC에게 매각하고, SPCC는 채권 발행자에게 자본을 넘긴다. 그리고 SPCC에게 매수된 자산으로부터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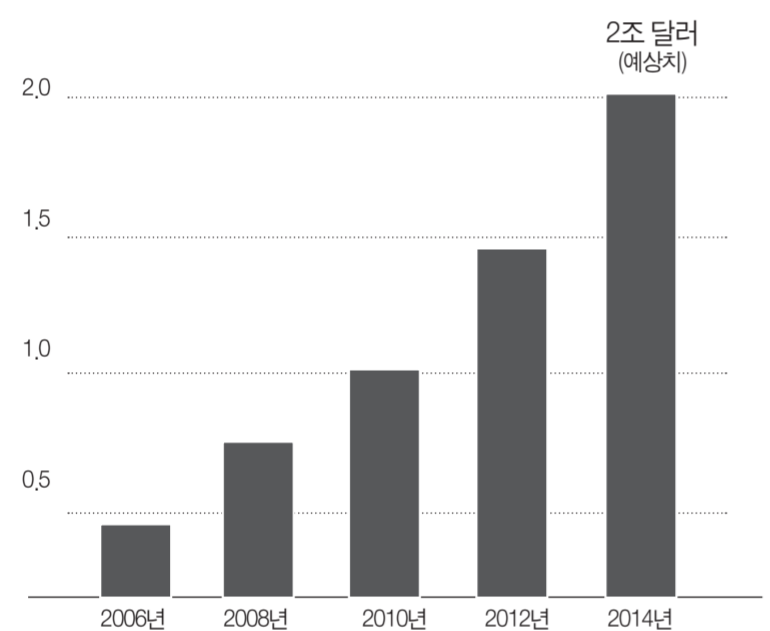
람 금융은 실물자산거래를 기본으로 한다. 우리의 금융과 다른 부분이기도 하다.

### 우리나라와 이슬람 금융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방문에 따라 수쿠크와 같은 이슬람 금융상품의 국내 도입이 재조명될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지난 2009년도에 검토되었던 수쿠크법은 2011년에 무산된 바가 있다. 이에 민생기(경영학부) 교수는 "이슬람이란 종교 색을 가진 금융상품이다 보니 종교단체의 반발도 도입되지 못했다"며 "이슬람 금융은 오일머니와 큰 상관관계를 가지는 만큼 우리나라에 오일머니를 들여오게 하면 우리나라 산업에 투자를 유치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해서 민 교수는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이슬람 금융시장이 주목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슬람은 여러 대륙,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데도 단일성이 우수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젊은 평균 연령과 확대되는 인구 규모도 이 시장이 충분히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전했다.

오경민 기자 1233075@hansung.ac.kr

이슬람 금융 시장규모 추이 (출처:UKIFS · 일본 니혼게이지아)



어느 날 아부 하니파 가게에 한 여성이 비단옷을 팔기 위해 찾아왔다. 그녀는 100디람에 비단옷을 팔려고 했다. 아부 하니파는 더 비싸게 받아도 될 것 같다면 얼마에 팔겠냐고 되물었다. 이에 이 여성은 처음 값의 두 배인 200디람을 얘기했다. 하지만 아부 하니파는 이전과 같이 더 비싸게 받아도 될 것 같다고 하였고 여성은 가격을 더 높여 제시했다. 그런데도 계속 더 비싸게 받아도 될 것 같다는 아부 하니파의 말에 여성은 아부 하니파가 자기를 놀리는 듯해, 장사 볼 적고 다른 곳을 찾아 나가려 했다. 결론적으로 아부 하니파는 처음 여성이 제시한 100디람의 다섯 배인 500디람에 그 옷을 샀다.

12세기의 유명 이슬람 철학자인 무함마드 가잘리는 "누구든지 돈 거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알라의 축복을 내버리는 행위이며 부정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며 "돈은 돈 자체가 아닌 다른 것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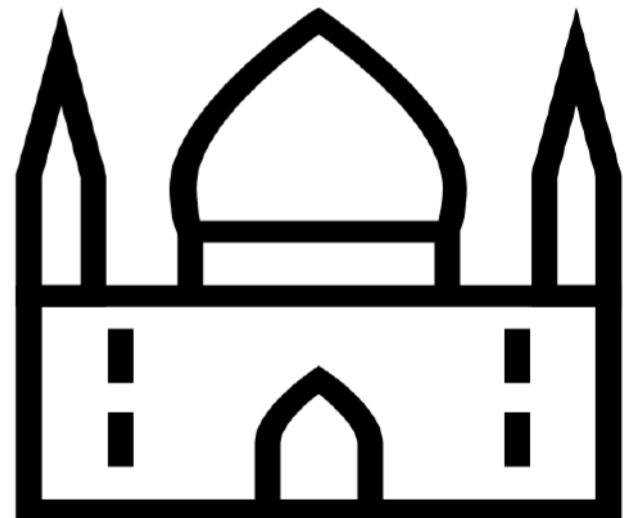
그렇다. 이슬람 사회에서 돈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질 수 없다. 돈은 사물의 교환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샤리아에 따르면 리바는 불로소득으로, 이는 타인을 착취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폐의 시간가치는 인정받지 못하고 은행에 장기간 돈을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은행은 대출이란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이자라는 수익을 받는다. 특정 액수의 돈

과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이야기일 것이다. 무슬림에게 허용되는 것을 할랄, 허용되지 않는 것을 하람이라고 하는데 술과 돼지고기 산업과 같은 하람 산업에 대해 금융 상품 거래도 금지된다는 이야기이다.

### 거래 형태: 무라바하와 수쿠크

우리에게 익숙한 이자, 즉 리바가 이슬람 금융에서는 금지되기 때문에 이들의 금융상품은 조금은 독특한 구조를 가진다. 우선 이슬람 금융 상품 중 '무라바하'는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데, 무라바하의 거래 형태는 이렇다. 자본사용자(고객)가 자본(돈)을 사용해 구입할 자산을 자본제공자(은행)가 대신 구입한다. 이후 자본사용

하는 현금흐름(수익금)은 수쿠크 투자자에게 전달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다. 이 두 대표적인 이슬람 금융의 거래 형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슬



## 서원재교수의 락거름

### 스포츠의 자본화

'세계에서 몸값이 가장 비싼 스포츠 스타는 누구일까.' 최근 ESPN 보도에 따르면 30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벌어들인 메이웨이드와 400억 원을 번 LA다저스의 클레이튼 커쇼 등이 세계 10대 스포츠 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물론 광고와 스폰서 수입은 제외된 금액이다. 얼마 전 MLB의 미네소타 트윈스는 1285만 달러의 최고 응찰액으로 박병호 선수와의 단독 협상권을 따냈다. 이는 류현진과 강정호 선수를 통해 한국 프로야구의 수준을 검증한 메이저리거가 국내 4년 연속 홈런왕인 박 선수 소속팀 넥센에 140억 원을 웃도는 이적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보인 것이다. 한국 프로야구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폐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필자의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한 건 왜일까. 무려 47%에 달하는 선수들이 3000만 원을 밑도는 연봉을 받고 있는 한국 프로야구의 현실에서 구단주와

일부 스타선수들의 부만 축적하는 것 같아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포츠의 생산수단은 사유화된다. 또한 상품성을 중요시하는 경제적 개인주의를 따른다. 구단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스포츠 노동자들이 생산한 경기와 유희적 상품들을 진열하고 자유경쟁을 통해 선택된 스타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한다. 더 큰 수익을 얻으려 선수들을 포스팅 경매에 내놓기도 한다. 기업의 이름을 따서 경기장을 짓기도 하고 스포츠 카이박스를 만들어 과시적 소비를 부추기기도 한다. 스포츠 거래로 발생한 수익의 대부분은 구단 경영진과 몇몇 스타 선수들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스타중심의 생산구조상 대부분의 스포츠 노동자들은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스포츠에 만연한 경제적 개인주의는 일부 스타중심의 턱없이 높은 연봉과 스포츠의 빈부격차, 도박, 승부조작, 약물남용 등 문제를 낳는다.

대중은 자본화된 스포츠의 이러한 모순을 인식하면서도 스포츠가 주는 '흥과 열광'을 즐기려 침묵한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고 그 모순이 심화될수록 대중은 스포츠를 통해 숨길 곳을 찾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대중은 스포츠의 자극적, 유희적 아이덴티티를 소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중이 추구하는 '흥과 열광'은 스포츠 스스로 '도전'과 '노력', '공정한 경쟁'과 '패용', 그리고 '인간다움'이라는 고유한 가치를 부여할 때 완성된다. 그래서 필자는 자본의 집중과 빈곤을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현대 스포츠의 자본화를 염려한다. 현대사회에서 대중은 소비를 통해 욕구불만을 해소하려 한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이들의 불만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문명과 그것의 불가결한 모순에서 비롯된다. 물질적 자본주의가 진척될수록 스포



츠는 스포츠 사회가 추구하는 고유한 가치와 게임다움(gameness)에 더욱 집착해야 하는 까닭이다. 스포츠 자본이 사회주의적 사고를 견지하는 해안이 필요할 때다.

### 서원재

음지대 스포츠아웃도어학과 교수



## 음식을 눈으로 먹는다고?

육즙이 나오는 스테이크를 먹는 상상을 해보자. 그릴 위에서 먹음직스럽게 익어가는 소리, 코를 휘감는 고기 익는 냄새, 빨간 속살은 물론이고 부드럽게 씹히는 질감. 그리고 탄성을 내지르게 하는 그 맛까지.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오감을 자극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그중 미각이 음식의 맛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일 것이라고 흔히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맛을 느낄 때 작용하는 오감 중 미각은 1% 정도에 지나지 않고 시각이 87%를 차지한다는 연구가 있다. 즉, 음식을 눈으로 먹는다는 것이다.



일본 도요(東陽) 대학의 색채 학자 노무라 준이치는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다. 똑같은 커피가 든 4개의 캔을 각각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진한 갈색으로 칠해 피실험자들에게 커피의 풍미와 향의 진한 정도를 평가하도록 했다. 피실험자들은 4개의 커피가 각각 다른 커피라고 생각한 채로 커피를 마셨다. 그 결과 피실험자의 73%가 진한 갈색 캔의 커피가 '맛과 향이 제일 진하다'고 응답했고, 87%가 노란색 캔커피가 '맛과 향이 제일 연하다'고 응답했다. 이 실험에서는 '맛'이 '미각'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커피의 맛을 느끼는

데에 있어서 캔커피 캔의 색깔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색깔은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식욕에도 영향을 미친다. 노무라 준이치는 색에 대한 식욕 반응을 알아보는 연구를 통해 '식욕 스펙트럼'을 발표했다. 식욕 스펙트럼에 따르면 빨간색, 주황색의 난색 계열에서 높은 식욕을 나타내는 것을 발견했다. 실제로 패스트푸드점이나 많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메인 컬러로 빨간색을 선택하는 것이 우연은 아닌 것이다. 반면 청색과 보라색으로 이어지는 색깔에서 식욕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예로부터 청색이나 보라색은 독, 쓴맛, 달 익은 과일, 상한 음식을 연상하거나 느끼도록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식욕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듯 청색계열의 인테리어, 주방 소품, 그릇 등을 사용해 식욕 억제를 도모할 수 있다. 조명의 색깔도 식욕에 영향을 미친다. 따뜻한 느낌의 백열등 아래에서는 소화작용이 촉진되어 음식의 맛이 좋아지고 형광등 아래에서는 소화력을 둔하게 만들어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미각을 통해 느끼는 맛 그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색깔, 조명에 따라 맛이 더 좋아지기도, 식욕이 증가하기도 했다. 우리는 눈으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다.

한재원 기자 1236047@hansung.ac.kr

# 모든 성소수자들을 위한 특별한 축제, 서울프라이드영화제



## 프라이드

프라이드는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들과 석탄노조의 연대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1984년 여름, 마거릿 대처가 적자가 계속 되던 탄광 20개의 폐쇄를 결정하자 영국석탄노조는 파업을 선언한다. 이 소식을 접한 런던 기반의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들은 그들을 돕기 위해 모금 운동을 벌인다. 하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광부들은 그들의 도움을 거절한다. 과연 이들은 석탄노조를 도울 수 있을까?

영국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가 더 뜻 깊은 이유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 현장을 동성애자인권연대가 찾아가 그들을 응원한 것이다. 처음에는 많이 낯설어 꺼려지기까지 했던 그들이

지만 지금은 함께 투쟁하는 든든한 동지가 되었다고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도움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성소수자 혐오 반대시위에 참여해 성소수자들과 진정한 연대를 이루고 있다.



## 국내단편2



‘국내 단편 2’에는 어떤 질투, ‘OPEN’, ‘애타는 마음’, ‘소문의 벽’, ‘낯날’을 포함한 다섯 편의 영화가 속해있다.

‘어떤 질투’는 이영진 감독이 직접 주연으로 연기한 영화다. 영진은 어느 순간부터 오래된 이성친구인 대환이 남자로서 보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예상하게도 대환은 남자애인이 있는 동성애자! 절절할 것 같은 영진의 이야기는 생각 보다 소소하고 담백하다. 대환과 대환의 애인의 애정행각에 질투를 느끼다가도 대환의 사소한 배려에 행복을 느끼는 영진의 모습은 어디서 본 듯한 낯설지 않은 모습이다.

‘OPEN’은 성소수자인 감독이 본인의 고민을 모티브로 직접 시나리오를 제작해 만든 영화로 성소수자라면 한번쯤 겪어봤을 법한 ‘원치 않은 커밍아웃’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커밍아웃하지 않은 성소수자인 한도가 애인과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친구 준재가 보게 되면서 영화는 클라이막스로 치닫는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친

## 욕망의 밀회

욕망의 밀회에는 ‘클린 미’와 ‘할 말은 거기에 없었네’ 두 작품이 속해있다. 이는 유일한 19세 작품들이다.

‘클린 미’는 병철이 출소 후에 범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영화는 지루할정도로 답답하게 병철의 별 다를 것 없는 일상을 카메라로 담아낸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병철의 시선 끝에 머물게 된 노란 머리 청년! 당신은 어느샌가 틀에 박힌 병철의 일상 속 변화를 감지하는데 재미를 느끼고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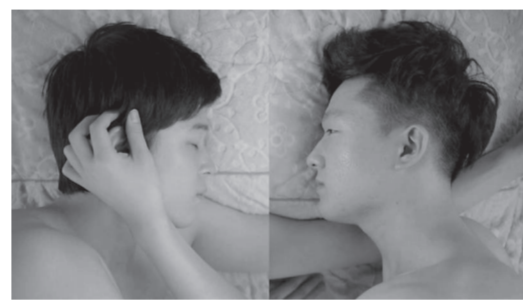
‘할 말은 거기에 없었네’는 시작부터 강력한 베드신이 나온다. 하얀 방에 나체의 두 남성이 얽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은 섹시하다 못해 관능적이다. 몽타주 기법으

로 펼쳐지는 두서없는 장면과 따로 노는 독백과 대화는 감각적인 것을 넘어서 신비롭기까지 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석준의 성장스토리는 관객의 53분을 순식간에 앗아간다.

‘애타는 마음’은 택시기사 준길의 이상행인 현준을 택시에 태우면서 생기는 해프닝을 다룬다. 현준은 다른 남자와 바람난 동성 애인을 미행하기 위해 준길의 택시를 타게 된다. 그런 현준을 준길은 욕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기회를 호시탐탐 노린다. 과연 준길은 현준과의 썸씽을 성사시킬 수 있을까? 준길의 혀로 입술을 핥는 등의 코믹함이 관람포인트!

‘소문의 벽’은 여고생들의 성장체성 혼란과 섬세하고 예민한 감성을 잘 표현한 영화다. 지원에게 친구 민영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다. 은하가 그런 민영과 학원에서 키스를 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지원은 복잡한 감정에 빠지게 된다. 민영을 향한 자신의 감정과 은하에 대한 질투는 점점 커져만 가고 지원은 급기야 민영에게 “나 사실 레즈비언인데 네가 좋아!”라는 발언을 하고 마는...

‘낯날’은 항구도시 폐기물 처리장에서 일하는 선기에 군대 후임이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군대 후임과의 기억은 선기에 어떤 의미로 잊고 싶은 기억이자 이미 잊은 기억이다.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더욱 애절하고 위험했던 그들의 사랑 이야기. 선기는 제대 후 여자친구도 사귀며 후임을 잊고 지내지만 후임이 찾아오면서 잊었던, 아니 잊고 싶었던 그 날을 상기한다. 그들은 서로에게 지나간 사람들로 여겨다 한 번 보이는, 하지만 늘 떠 있는 낯날과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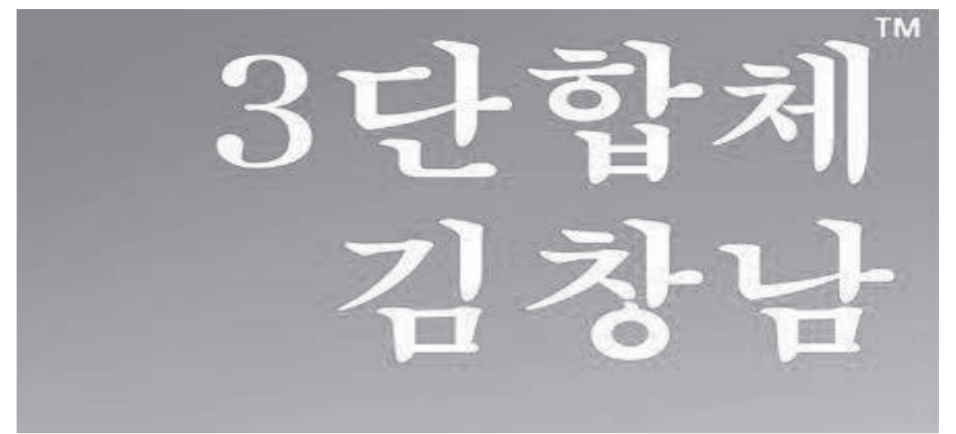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많이 달라지는데 일조한 영화제가 하나 있다. 바로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서울프라이드영화제다. 퀴어 영화를 전문적으로 상영하는 서울프라이드영화제는 2001년 서울LGBT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처음 열렸다. LGBT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로 성소수자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 단어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무성애자, 인터섹슈얼, 퀘스처너 등의 성소수자도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 LGBT영화제는 전 세계의 성소수자 운동의 상징인 'PRIDE'로 이름을 바꿔 '서울프라이드영화제'로 올해 새롭게 출발했다.

영화제는 10월 30일 영화제와 이름이 같은 영화 '프라이드'로 개막해 11월 5일 영화 '프리퀀드'로 막을 내렸다. 영화제에는 커밍아웃한 성소수자 연예인인 하리수와 홍석천부터 임보라 섬돌향린교회 목사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자문위원과 집행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집행위 원장은 5년째 김조광수 감독이 맡고 있다. 영화제에서는 베를린 국제 영화제 수상작부터 인디 영화까지 다양한 퀴어 작품들이 상영되었다. 그 중 몇 가지 작품을 꼽아 소개한다.

김민정 기자 kmj@hansung.ac.kr

## 웹툰 미줄긋다 <3단합체 김창남> 하일권



“...호구는... ‘좋은 사람’이 맞는 것 같아”

\_4화 거짓말

제목에서 오는 포스. 촌스러운 로봇을 떠올리게 하는 삼단합체라는 단어에 김창남이라는 세기말적 네이밍까지. 제목을 보고는 상상할 수 없다. 이 웹툰. 하지만 그 내용은 상상 이상이다. 무얼 생각하던 말이다. 네이버 웹툰에서 수작을 만들어 내기로 유명한 하일권 작가의 ‘삼단합체 김창남’은 그렇다.

줄거리는 이렇다. 과학이 발달된 가상의 미래 세계 속 한 고등학교에 왕따를 당하는 소년 이호구. 이 름처럼 친구들에게 호구 취급 받는다. 인간과 똑같은 외형의 여성 로봇 시보레를 제작한 김창남 박사는 시보레를 테스트하기 위해 호구가 있는 고등학교로 전학을 보낸다. 우연하게 그 로봇을 바로 옆에서 관리하는 인물로 호구가 낙점된다. 시보레라는 이름을 가진 그 로봇은 인간과 똑같은 외형을 가지고 똑같이 말할 수 있지만 기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호구는 그녀가 로봇인 것을 알면서도 인간처럼 대하고, 호구는 그녀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다.

호구가 살고 있는 미래 사회에서 로봇이자 비인간인 시보레는 오히려 가장 인간적인 인물로 그려진

다. 학교 친구들이 호구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것을 보며, 시보레 자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 거짓말 한 호구를 보며 시보레는 철저히 시스템에 따라 판단한다. 시보레의 말, 행동은 감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프로그래밍화된 반사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가장 ‘인간적인’ 듯하다.

하일권 작가의 웹툰 중 가장 화려한 색깔로 표현됐기 때문일까. 김창남 박사가 설치한 도시 곳곳의 거대 로봇 때문일까. 이 웹툰은 찬란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찬란한 도시에서 가장 외로운 두 주인공 호구와 시보레. 이 둘은 서로의 곁을 채워준다. 시보레는 왕따인 호구의 친구가 되어주고, 호구는 로봇 시보레가 가지지 못한 감정을 자신의 감정으로 채워준다.

가장 ‘인간적인’ 두 주인공의 결합은 어떻게 될까? 굳이 스포일러를 하자면 ‘삼단합체 김창남’은 평범한 소년과 로봇 소녀의 단순한 사랑이야기가 아니라

한재원 기자 1236047@hansung.ac.kr

### 독자이벤트

독자이벤트는 한성대 신문을 구독하는 학우분들에게 연극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신문을 읽고 주관식 단답형 문제를 풀어주세요!

Q1. 보도 31대 총학생회 선거의 투표일은 언제인가?  
Q2. 사회 올해는 전태일 추모 몇 주가 인가?

• **추첨방법** •  
정답자에 한해 추첨하여 연극<셜록홀مز> 티켓을 (1인 2매)를 드립니다. 이름/학과/학년/연락처를 기재해 신문사로 발송하여 주세요.

• **지난호 당첨자** •  
508호 연극티켓 당첨자  
· 박승아(부동산 2)  
· 서현정(무역 3)  
· 서현수(기계 1)

당첨자는 신문사로 방문해 연극티켓을 수령해 가지면 됩니다.

★★★★★  
세계적인 영웅 셜록홀مز  
여전히 '셜록홀مز신드롬'은 계속된다!

SHERLOCK HOLMES

내가 죽으면 이야기가 완성된다

# 셜록홀مز

원작 아서코나도일 작/연출 정구진

## ‘OPEN’의 밤 감독과 조윤호 배우를 만나다

국내단편2 ‘OPEN’의 제목에는 다양한 뜻이 있다. 갑작스럽게 문이 열리면서 사건이 진행된다는 의미, 주인공이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난다는 의미, 걱정과 달리 친구가 오픈 마인드였다는 의미가 그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뜻을 함축하고 있는 ‘OPEN’을 제작한 성소수자인 밤 감독과 주연 역할을 맡은 조윤호 배우를 만났다.



를 쓰고 캐스팅을 진행하고 영화를 찍고 편집하는 모든 과정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다.

윤호: 친한 친구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과 혼란을 연기해야 했는데 단 한 번도 그 상황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힘들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는 연습을 했다.

### 영화의 비하인드스토리가 있다면

밤: 촬영 전날 주인공역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바로 다음날 촬영할 수 있는 배우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가까스로 소개를 통해 주인공역을 맡을 배우를 캐스팅할 수 있었다. 또 촬영 당일, 갑자기 비가 내려 야외촬영에 어려움이 생겼다.

윤호: 감독님 말에 동의한다. 갑작스레 내린 비로 우

산을 들고 촬영하게 돼 화면이 안 예쁘까 걱정했지만 결론적으로 비 덕분에 씬이 감성적으로 찍혔다.

마지막으로 영화를 통해 느끼게 된 것이나 관객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밤: 주인공이 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준재는 “뭐야,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한다. 성소수자인 나를 모두가 이해해주길 바라는 건 아니다. 다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만큼은 내 성향에 대해 비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대부분의 성소수자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

성소수자 관객들이 영화를 통해 위로를 받거나 대리만족을 느꼈으면 좋겠다. 또 성소수자가 아닌 관객들은 영화를 주변 사람의 커밍아웃에 대처하는 지침서로 삼았으면 좋겠다.

윤호: 준재 역할에 감정이입을 하면서 점점 성소수자를 이해하게 됐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이성취향이 있다. 동성애자들도 각자의 취향이 있고 그 취향이 이성애 아닌 동성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작품을 통해 배우로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김민정 기자 kmj@hansung.ac.kr